

# 서울대 “스펙보다 특성있는 자소서가 중요”

〈자기소개서〉

##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전국 고교 배부

### 공부법·입시 전형·선배들의 경험담 등 담아

Q : 교외 수상 실적 등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노력한 학업, 학업 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생이 노력한 내용의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분석,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 학업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Q : 제출 서류는 배점이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A :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종합’이란 표현은 제출 서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평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서류평가도 각 제출 서류들의 일정한 반영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

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분석·종합해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Q :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A :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이른바 ‘스펙이 좋은 학생을 뽑는다’, ‘증빙서류는 평가에 점수로 환산해 반영한다’, ‘제출서류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자기소개서다’, ‘봉사활동은 시

간이 많을수록 좋다’ 등의 통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전형)을 수험생과 교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발 방법과 선배들의 경험담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 고교에 배포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전형의 선발기준과 준비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지만, 책자 형태로 만들어 일선 고교에 나눠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명칭이 바뀐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제외한 모든 전형을 말한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 일반전형, 수시 기회균형선발전형 I, 정시 기회균형선발전형 II가 여기에 속한다.

책자에는 2015학년부터 달라지는 점과 학생들의 올바른 공부법, 학교가 도와줄 사항, 선배들의 경험담 등이 자세히 담겼

다.

예컨대, 자기소개서에는 고교 생활 중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적어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경험과 방법, 고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열심히 노력한 일,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등 학생부로는 알 수 없는 나만의 특성을 담아 달라라는 것이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선배들은 수기에서 우선 진로를 정하고 이에 맞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만의 강점을 키워라고 조언했다.

식품영양학과 송재원 씨는 “(면접 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면서 느낀 영양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합격 비결을 전했다.

박재현 입학부장은 “기존 입학사정관전형 안내자료를 보완·발전시킨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진학교사들과 함께 하는 대입 성공 프로젝트

### 수시 논술전형 올해부터 우선선발 폐지

# “글쓰기 실력을 키워라”

#### ■수능 이전 자연계 논술고사 일정

9월27일(토)	9월28일(일)	10월3일(금)	10월4일(토)	10월5일(일)	10월9일(목)
건국대	한양대	중앙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항공대		특기자전형	동국대		과학인재전형
			홍익대		

#### ■수능 이후 자연계 논술고사 일정

11월15일(토)	11월16일(일)	11월18일(화)	11월21일(금)	11월22일(토)	11월23일(일)
울산대	가톨릭대(의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원주)	고려대	중앙대
서경대	성균관대 일반전형			아주대	광운대
경희대				경북대	이화여대
인하대				부산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 ⑤ 논술 위주 전형

올해 수시 논술위주 전형은 29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세종대는 올해 첫 도입했고, 경북대·부산대·서울과학기술대·한양대(ERICA)는 평가요소를 논술로 전환했다. 반면, 국민대·동국대(경주)·상명대(서울)·성신여대는 논술전형을 폐지했다.

올해 논술위주 전형 선발 규모는 다소 줄어 1만7489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전체 모집정원의 20%가 넘는 대학도 있고 일부 대학은 30%를 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올해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는 여전히 중요한 전형요소다.

#### ◇논술고사 자격과 당락 요소

▲논술실력, 당락의 결정적 요소=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전형에서는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요소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 출제경향, 작문과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자연계 학생은 수능 탐구영역의 응시 과목과 논술 응시 대학의 과학출제과목이 다르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세대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성균관대는 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은 논술고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국대는 수리과학 통합논술(과학 2과목), 수리논술+과학논술 물리·화학·생명과학(모집단위별 과학과목 지정) 중 1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과 물리를 지정한 기계공학과와 응시생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원서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이다.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예측하라=논술위주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은 수능위주 전형에서 일부 학과의 경우 ‘우선선발 최저기준을 충족했다면 논술시험을 대충 봐도 합격한다’는 통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많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선선발이 없어지고, 내신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므로 논술실력과 최저등급 통과 여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철민 시민기자(숙명고 교사)**

## 유진투자증권 21일

### 조선대서 입시설명회

#### 김미연 강사 초청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정수)이 오는 21일 조선대학교 서석출에서 ‘입시전략전문가 김미연의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미연씨는 ‘교육의 정석’ 저자이자, 주요 경제신문에서 수년간 베스트 에디리스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입시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여러지역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에디리스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이 올바른 입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틀·연락처·참가인원을 적어 이메일(edu2015@eugenefn.com)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점,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거인의 어깨(02-564-2188)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청소년진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하며 즐겁게 웃고 있다.

## 담양교육청, 지역 초·중생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 진로 탐색·미래 설계 등 진행

담양지역 초·중학생 100명이 진로캠프에 참가해 꿈과 미래를 설계했다.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식)은 14~15일 이틀간 담양지역 초·중학생 50명과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수련원(원장 나도팔)에서 진로캠프

를 열었다.

“꿈을 찾아 꿈의 지도를 그리다”, ‘내 꿈으로 그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주제로 진행된 캠프는 진로 유형 탐색,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내 모습, 미래 스토리 보드 설계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설계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담양여중 김예지 양은 “나의 미래·진로에 대해 꿈금이 생각할 볼 수 있는 계기였다”며 “1박2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고 유익했다”고 즐거워 했다.

박인식 담양교육장은 “학창시절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 채널A

www.ichannelA.com